

연중 제25주일

기도서 P. 439 A해

제1독서(이 사 55, 6-9)
제2독서(골 립 1, 20c-24.27a)
복 음(마 태 20, 1-16)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그 나라가...

황 인 규 신부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티나의 민중은 주로 노동자 농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의 비유에서 로마 제국의 학정에 고용되어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의 비참한 노동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이 현실에 하늘나라를 건설 해야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졌던 것이다. 그렇게도 심혈 옥체 노동에 인색하게 주는 임금 받기 경험은 했을지라도 모른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일터에 나간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서 해저를 무렵까지 방황하던 실업자에게도 일의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하루 임금 한 메나리온을 주자고 그의 임금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가격형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들면 그 사람의 재능이나 기술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한 메나리온이라는 임금은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의 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시간으로 따지는 시간급이나 또는 노동 능률을 따져 지급하는 업적급도 아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이 주인의 태도는 나를(기업주) 위주로 하는 기업주의 태도가 아니라 너를(노동자) 위주로 하는 경제제제라고 보아야 하겠다.

여기에서 어떤 경제 이론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저실직자를 먹여 살려 놓고 보자고 하는 인도주의적 이론이다. 이 경우 주인이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불했다고 하면 5시에 온 사람은 8분의 1메나리온을 받아 가지고 가야 했을 것이다. 쉼경은 식구가 그 밥을 굶으며 지냈을 것이다. 즉, 가장 합리적이란 로마법에 얽매어 물인정 하게 죽어가는 삭막한 사회가 되었을 것이다.

현대에 노사문제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이다. 노동을 매개로 하고 대립되어 있는 인간 사회에 이 주인 처럼 5시에 온 실직한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한시간 노동에 하루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이런 일에 현대적 의미의 천국은 있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고 사회적으로 극히 불안했던가를 알 수 있다. 빈부의 차이는 극심했으며, 일부 특권층은 로마 제국에 영합하여 치부에 혈안이 되었으며, 그래서 민중의 대다수는 비참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암흑에 갇혔으며 거의 체념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그려보며 가장 구체적인 임금제를 구상 하셨을 것이다. 그야말로 현실을 극복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해방자요 구세주시다. 하루의 8분의 1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받고 귀로에 선 이 품군의 모습, 그 기뻐 감사하는 마음, 거듭만져보는 그 한 메나리온의 은화 속에도 실질적인 천국이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법(法)에 의한 정당한 임금 지불이라도 제대로 주어짐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보장되고 충분한 댓가가 주어져야 함을 이미 2000년전에 설파하신 예수님의 예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된다.

(삼례천주교회 주임신부)



쥐뿔같은 허세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에게 동양 최대나 최고의 자랑거리 기록들이 몇가지 있었다. 어떤 것은 세계적인 기록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가 고속도로 건설 기록이기도 하다. 매스컴들은 앞을 다투어 이를 보도해 줬다. 신문의 천연색 화보와 텔레비전의 특집 보도, 영화 상영에 앞서 볼 수 있는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예로, 그 자랑스러운 고속도로가 지금은 "니뿔거리는 심봉사 도포자락" 꼴이 되고 말았다. 감추인 것은 언젠가는 들어나게 마련인 진리를 보여준 것이다. 어쩌면 소문난 잔치에 먹질 것이 없다는 예증인지도 모른다.

부끄러운 보도가 하나 있다. 지난 78년에 6억여원을 들여 세종문화회관에 설치한 파이프 오르간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동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일본의 NHK홀의 것보다 파이프 수에 있어서 5백여개 가 더 많아 동양 최대로 꼽힌 파이프 오르간이, 전문 관리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온·습도 조절과 먼지 처리와 조율에 문제가 있어서, 외국 전문가의 초청 연주를 계획해 놓고도 취소하는 추태를 벌인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없이 흥분적으로 벌이는 전시 효과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다.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犀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태산이 떠나갈 듯이 떠들썩했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뜻이다. 더 풀어보면, 야단스러운 소문에 비하여 그 결과는 보잘것 없이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다. 빈 장롱이 소란을 떨 때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가끔 허세를 부린다. 그러나 그 허세는 반짝이는 물방울 같아서 진리의 햇빛에는 스러지고 만다. 지도자의 허세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한다. 혹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허세가 없는지 살펴보자, 이 부자 성월에.

숲 정 이 산책



90원히 빛나라!

<순교자 현양대회>

거룩한 땅에 태어난 우리의 긍지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 철 신부

순교 선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숭고한 얼을 본 받고져 순교자 현양대회를 준비하시는 여러 신부님들과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심심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한 가정일망정 이웃 가정을 본 연후에야 우리 가정의 행복함을 알게 되듯이 이웃 교구를 넘나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
룩한 성지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200주년이란 대 명제 앞에 교구마다의 주옥같은 사업계획을 모아놓고 전국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을 때 순교자들의
핏자욱 하나 없는 다른 교구 대표님들의 허탈감을 보고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성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그토록 자랑스럽
게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이 나라에 천주교회가 전래된 이래 불과 7년째 되던 해인 1791년 12월 8일, 양반의 자
손이며, 진사의 고관직에 있던 윤지충(尹持忠) 바오로가 그의 나이 33세로 한국 천주교회 사상 최초로全州 형장(鎗正이)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으니, 이 아니 후손된 우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있으리요!

지금부터 44년전 1937년, 교황 비오 11세께서 천주교구를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로 선정한 것도 우리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땀가 엮음은 너무나 자명적인 사실입니다.

세계속에 한국 천주교회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순교자 이누갈다와 유요한의 동정부부들이 꽃피운 순교의 빨간
꽃송이와 동정의 하얀 꽃송이를 다발로 묶어 온 세계에 전해줘야 할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주년의 마지막 정점을 이루는 84년도에 교황님을 모시고 우리교장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형장에서
시복식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와 온갖 희생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한국의 제2, 제3의 성지순례를 원하신다면 순교의 효시를 이룬 순정이랄고 또 어느성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교우 형제 여러분!

북자성월이 가던 다시 전교의 10월달이 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월의 전교하는 달을 맞이하여 명실공히 이웃전교의 해에 대
한 목적을 다 하도록 전교 대열의 선봉에 나섭시다. 그리고 10월 18일은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 날입니다. (서
울 여의도 광장) 우리는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가장 정의롭고 평화롭고 일치된 가톨릭의 참모습으로 하느님
의 영광을 만 찬하에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사이 1장 24절)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의 올바른 구심점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안에서 무월의 순교자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순교현양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지역별 순교자 현양대회 안내—

(날짜 : 1981년 9월 27일)

- 제1지역 : 고창·정읍·배론성지, 부안·천호(고산), 김제·수류·신해인·원평 : 분당 단위
- 제2지역 : 대야·둔율·월명·오룡·팔마 : 고산 천호 순교자 묘소
- 제3지역 : 고산·금마·삼례·주현·창인 : 창인동, (시가행렬) 주현동,
- 제4지역 : 중앙·노송·덕진·북자·서학·순정이·전동·파티마 : 치명자산(이누갈다)
- 제5지역 : 남원 : 천호·전주 치명자산(9월 26일), 상관 : 4지역으로, 순창 : 분당, 임실 : 출퇴
- 제6지역 : 무주·장계·장수·진안·한들 : 장계성당
- 제7지역 : 여산·용안·함열·화산·황등 : 함열성당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집)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매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④ 0496

金 樂 均(요셉)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종 싱크
백곰표 싱크 주방

(東南綜合 싱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 樂 均(요셉)

제7차 교리경시대회 평가

1. 교리경시대회에 참여해야 할 학생 총수는 5,238명인데 응시한 학생수는 1,471명으로 교리경시대회에 응시율은 28% 뿐이다. 일반적으로 농촌본당의 다수 참여와 높은 관심도에 비해 도시본당의 소수 참여와 관심도의 저조가 나타난다.

2. 금번 교리경시대회의 중학교 평균점수는 66점이고, 고등학교 평균점수는 72점으로 성적이 저조한 편이다.

① 성적이 우수한 본당(평균 80점 이상)

중학교-김제, 원평, 정읍, 삼례, 남원, 임실, 무주, 한들
고등학교-김제, 원평, 신대인, 정읍, 주현동, 삼례, 파티마, 남원, 임실, 금마, 한들

② 성적이 저조한 본당(평균 60점 이하)

중학교-고창, 부안, 팔마, 순창, 상관, 진안, 용안, 함열, 전동
고등학교-고창, 수류, 팔마, 순창, 진안, 용안

3. 응시자가 부진한 본당(10% 미만)

중학교-김제, 중앙, 노송동, 대야(불참), 장수(불참)
고등학교-고창, 진안, 대야(불참), 장수(불참)

4. 전체적으로 시험감독 소홀과 개인 부정행위가 많다. 올바른 시험평가가 어렵다.

5. 긍정적인 면에서 볼때 많은 본당이 교리경시대회를 계기로 성경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다.

각 본당 응시 현황

본당명	중 등 부			고 등 부			본당명	중 등 부			고 등 부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학생 수	응시 자	평균
고길부원수신태인정정정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24	5	40	14	1	54	부자동	78	22	60	70	28	79
계안평유인읍동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116	7	83	133	19	80	노송동	219	1	64	183	19	79
부원수신태인정정정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45	9	48	29	11	61	진북	88	22	62	76	21	66
원수신태인정정정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25	3	96	21	10	87	덕진	126	17	65	163	29	78
태인정정정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60	34	72	28	12	58	남원	95	31	91	62	19	92
정정정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79	21	73	41	14	82	순창	46	8	23	20	10	41
정정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81	19	92	48	26	93	수입	15	16	82	25	15	87
문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110	36	56	79	16	48	상관	33	50	57	21	14	78
오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75	37	71	58	22	71	금마	20	18	61	20	13	81
월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50	16	78	49	8	73	부계	34	22	80	27	5	78
명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85	19	67	97	18	76	장수	14	14	74	5	15	79
대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167	41	62	154	39	60	장안	40	5	29	29	3	44
창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31	14	63	34	19	84	한들	18	20	86	6	4	91
원현삼고중전서화자동	85	27	85	81	17	80	화산	38	13	75	37	50	71
현삼고중전서화자동	35	8	60	20	10	73	용안	50	21	47	36	16	41
삼고중전서화자동	247	12	67	291	56	72	한양	126	34	55	163	13	71
고중전서화자동	200	72	57	241	84	70	황등	25	14	69	18	4	70
중전서화자동	85	34	70	64	23	76	여산	20	13	64	11	7	72
전서화자동	57	14	72	42	12	84	합계	2,742	769	66	2,496	702	72.4

▲입상자 명단(개인상) 중등부: 1등-김희숙(원평) 98.8점, 2등-강경정(정읍) 98.6, 3등-윤혜란(남원) 98.4, 4등-김경숙(중앙) 98.2, 5등-강효창(임실) 98

고등부: 1등-김영란(정읍) 96.8점, 2등-김병석(전동) 96.6, 3등-박인선(남원) 96.4, 4등-강병주(주현동) 96.2, 5등-원연순(임실) · 고명숙(정읍) 각각 95점

(단체상) 중등부: 1등-한들(86점), 2등-임실(82점), 3등-장계(74점)

고등부: 1등-장계(78점), 2등-화산(70점), 3등-한들(60점)

(참가상) 중등부-상관(50명), 고등부-화산(50명)



영명 황인규 · 김진석 · 유종환(마태오) 신부님: 9월 21일

축하를 드리고 기도중에 기억하자

요심이 (424) 김병오



□작품전
김정자
바가지공예 작품전
일시: 1981. 9. 19~9. 21
장소: 김정자 바가지공예 연구원
전주시 경원동 3가 50의4
(이경범 방사선과 의원 2층)
주택은행 옆

공지사항은 수요일 오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광고신청은 화요일까지 직접 오세요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매그리거 주니어 아동복 MCGREGOR (남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허약한 분, 병약한 분에게!
□보신·보양·고단위 영양 식품
(성모병원) 토롱센타
◎토롱탕(한방 고단위 영양식품)
◎전자쭉찜기(신경통, 위장병 치료기) 판매
※(보·허122호/신안투허7328호)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주문 배달함) 전화 ④ 4567
활 수 산 나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림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마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④ 4448 ④ 217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박찬신 신부님 장기 입원 : 지난 8월말부터 신부님이 서울 성바오로 병원 1012호실에서 계속 괴로운 투병을 하고 계신다 작년엔 입은 상처의 후유증인듯 모세 혈관의 수축현상으로 앞으로 몇 주간 치료를 병행해야 된다고 한다. 신부님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많은 기도와 성원을 드려라
2. 조선 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전국 중·고생 운병대회 : 뜻있는 분은 21일(월)까지 교구청으로 오세요
3. 박찬길 부제 부친 별세 : 지난 9월 15일 박용기(베드로)님이 영면하셨다

(중앙)

전화 ③3651번 주임 신부 문정환
보좌 신부 박기영
보좌 신부 박기영
사도 회장 박기영

※ 유중환(마태오) 보좌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 축하식-20일 10시 30분 미사후 성당에서
-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 2. 애령회 월례회 : 9월 25일 어머니 미사후 회합실
- 3. 착한 사마리아인회 : 23일(수) 오후 2시
- 4. 성령 세미나 : 9월 21일 오후 8시~26일까지 강당 회비 3천원
- 5. 순교자 현양대회 : 9월 27일 오전 11시 치명자산
- 6. 예비자 교리 : 부활 영세예정자 모집기간 9월 30일까지 마감합니다 각 레지오 단원과 교우 여러분은 꼭 오 없기 바랍니다
- 7. 전체 쟈 모임 : 9월 20일(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쟈전이 내려옵니다
- 8. 장미의 제전 : 전주여고 로사리오 쟈 20일 오후 2시 강당 학생들은 많이 참석하세요
- 9. 시화전 : 9월 20일(일) 성당, 중앙 학생회 주최
- 10. 서울본부 쟈과 함께 2.3.4쟈 모임 : 9월 20일 오후 2시 30분 중앙성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은혜의 밤 : 25일(금) 저녁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 : 오늘부터, 매주(일) 공식미사 후 매주(수)저녁 8시, 예비자를 안내합니다
3. 베소라 성서 강의 : 매주(화) 저녁 8시~10시까지 수강을 신청하신분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 특강 : 매주(월) 오후 2시부터
5. 레지오 마리에 친선 오락회 : 오늘 공식미사 후 레지오마리에 단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6.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사도행전 전체
7. 고무금 남부의 날 : 오늘은 고무금 남부의 날입니다 교우님의 성전에 받는지 고무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30, 30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주일학교 성가 경연대회 :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1시 까지 성당으로 보내 주세요
2. 성서연구 모임안내 : 수요일 3시 어머니팀, 금요일8시 젊은이,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밀린 봉헌금 납부합니다
봉투는 확인 하시고 봉헌 합니다
4. 미사시간 늦지 맙시다
자리는 앞에서부터 성서·성가집 지참 합니다
5. 영세식 : 26일 4시 대부·대모님 모시고 1시간전에 나오세요
6. 순교자 현양대회 : 27일은 학생미사와 공식미사는 없습니다 11시에 치명산에서 합동미사 있습니다
7. 반석회 모임 : 27일저녁7시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21, 79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저녁 미사후
2. 설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염규철, 김국원 형제)
3. 순교자 현양대회 : 다음주일 11시 치명자산에서, 본당에 공식미사(10시 30분)없음
4. 견진하실분들은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본당에서 영세 받으신분은 세례 증명서를 해오셔야 합니다

야 합니다

5. 은퇴 신부님들을 위한 특별 헌금 : 다음주일까지 여러분들은 주석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신의 부모는 잊지 않으셨는지요. 은퇴 신부님들은 이번 주석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 지난주 봉헌금 : 351, 2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순교자 현양대회 : 9월 27일(11시), 본당에 10시 미사없음
2. 할머니회 :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교리 : 일요일-공식미사 후(어린이는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 제병 봉헌해 주신분 : 김순자(5만원) 포도주 봉헌해 주신분 : 최성길(5천원) 감사합니다
5. 다음주전례담당 : 독서-① 김나섭 ② 정형석

□ 지난주 봉헌금 : 213, 515원 교무금 : 152, 000원
200주년 특별헌금 : 55, 370원

(술집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회의실
2. 대학생 월례회 : 오후 2시 회의실
3. 요양회 월례회 : 9월 27일
4. 주일학교 아동 성가 경연대회 : 20일 오후 2시, 성삼 학교 강당
5. 복자 현양대회 행사 : 9월 27일 오전 10시 치명자산
6. 중·고등학생 성가연습 : 매일 오후 6시 많이 참석바랍니다
7.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기호, 독서-① 이동선 ② 이종상, 기도-이종욱

□ 지난주 봉헌금 : 315, 080원

(전동)

전화 ②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영세식 : 9월 26일 오후 7시 30분
2. 중·고 교리교사 임명
중 ①-변해식·장복래·김윤찬, 중 ②-최희정·임영호·이명익, 중 ③-주홍찬·김선희·오해경, 고 ①-정민섭·이영욱·김선희, 고 ②-조대항·임길래·문경혜
3. 젊은이 단체장 모임 : 오늘(20일)저녁 미사후, 보좌신부님 응접실
4. 본당 9일기도 : 9월 16~26일 오전 5시 30분 치명자산에서 본당미사 없음
5. 주일학교 성가합창 경연대회 : 오늘(20일)오후 2시, 성삼학교 부모님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6. 순교자 현양대회 : 9월 27일 오전11시, 치명자산에서
7. 교미시움 : 오후 2시
8. 성화회 : 공식미사 후
9. 울드레아 : 오후 8시(다음주)
10. C. O. I 교육 잘하고 있습니까? (교창신부)
11. 다음주(27일)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주, 독서-① 이현재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 신일균 ②장금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 변해식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 472, 07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회장 채수현

1.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2. 순교자 현양대회 : 27일 오전 11시 치명자산에서
3. 조선 교구 설정 150주년 신앙대회 (10월 18일 5·16광장에서) : 오늘까지 신청바랍니다
4. 대학생 모임 : 다음주 저녁 미사후
5. 예비자 교리시간안내 : 매주-10시 미사후, 매주-저녁 미사후, 목요일-10시
6. 어린이들을 교리반과 미사에 보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38, 480원 교무금 : 129, 000원